

# “도덕적 해이...진정 모두 참회하자”

## 불자 세상보기

의뢰하기 직후 반쪽 상층했던 도시근로자 가구의 저축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특히 중산층의 소비행태가 고소득층을 닮아가면서 저축률이 매년 급격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은 통신, 교양, 오락비 등 선택적 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동아건설 퇴출과 현대건설 1차 부도 등으로 감지할 수 있듯이 다시 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 10월 31일 저축의 날을 보내면서 알뜰히 모아 어려운 때를 대비하는 지혜를 알아본다.



### 저축

#### 틈틈이 모아 어려울때 대비

■ 재물을 모으되 벌이 여러 곳에서 꿀을 모으듯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먹고 사는 살림에 만족하고 자기 직업에 게으르지 말며, 틈틈이 모으고 축적해 가난하고 어려울 때를 대비하는 것이 좋다. <선생경>

■ 만약 가족을 거느리고 세속에 살면서 재물은 재물이 있음을 깨달아 축적을 알고 절약하고 검소하게 재물을 쓰면 욕심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얻게 된다. <복음경>

■ 나는 일체의 뜻을 저축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또한 저축할 수 있다고도 말한다. 만일 뜻을 저축함으로써 곧 악한 법을 더하게 하고 착한 법을 쇠하게 하면 이런 뜻을 저축해서는 안 된다 고 말하는 것이다. 또 착한 법을 더하게 하고 악한 법을 쇠하게 하면 이러한 뜻은 저축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음식, 촛, 음 등에 대해서도 또한 그러하니라. <종이함경>

■ 벌이 먹이를 모으듯이 부지런하게 일하면 그의 재산은 저절로 불어난다. 이와 같이 재산을 모으는 사람은 집안에 복과 이익을 가져온다. 그 재산을 네가지 묶음으로 나누어라. 그중 한 묶음 생활비에 쓰고, 두 묶음 가지고 사업을 계속하고, 나머지 한 묶음 저축해 두어라. 그러면 가난을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장부경전>

■ 어떤 것을 '바른 생활'(正命)이라 하는가? 무리하게 구하지 않고 분수를 알고 만족할 줄 알며, 법답게 재물을 구해 어려울 때를 대비해 축적해 놓는 것이 현명하고 바른 생활이라 말한다. <사제경>

■ 가난하고 궁할 것을 미리 생각하지 못하고, 재물을 가벼이 여겨 사치를 즐기면 가정이 파괴되고 재앙을 부른다. 가난하고 궁할 때를 대비해 저축해 두면 이런 재앙을 미리 막을 수 있다. <선생경>

■ 다른 사문 바라문들은 오로지 잡가를 즐겨 바둑, 장기 등 갖은 놀음을 하며 오락에 빠진다. 그러나 사문 고오타마는 어려움이 닥칠 때를 생각해 그러한 일이 없이 재물과 시간을 축적한다. <선생경>

■ 증생들은 저절로 난 법살을 먹었다. 계속해 풍족히 생겨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하지만 저 중생 중에 어떤 자가 가만히 생각했다. '아침에 먹을 것을 아침에 취하고 저녁에 먹을 것을 저녁에 취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앞으로는 3일분의 양식을 미리 취하자.' 그래서 곧 한꺼번에 취하였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 사람이 가만히 생각했다. '이 사람은 영리해서 쌀을 저축했구나. 나도 이제 3일분의 쌀을 저축하리라.' 그 사람은 곧 3일분의 양식을 저축했다. <소연경>

요즘 우리사회에서 가장 유행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모럴 해지드(Moral hazard)'일 것이다. '도덕적 해이'라는 뜻의 이 말은 부패한 우리 사회를 표현하는 데 있어 가장 적합한 단어로 쓰이고 있다. '도덕'이라는 말이 '그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규범'이고 보면, 우리 사회가 그만큼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단풍놀이를 다녀오던 관광버스가 대형 트레일러와 정면 충돌해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참사가 일어난 지 사흘 뒤인 10월30일 인천시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1주기를 맞은 인천 호프집 화재 참

사와 관련해 의원들이 피해보상 지연과 청소년 안전 사고지대 방치 등 인천시의 무신경을 성토했다. 시의 기획관리실장은 "법적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고, 참다못한 의원들의 호통이 계속되자 그제야 "책임이 있다"고 꼬리를 내렸다고 한다.

우리는 한 때 '위험 공화국'으로 불렸고, 지금도 그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씨랜드와 인천 호프집 화재 참사를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지난 7월에는 수학여행 버스참사로 20여명의 꽃다운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고, 10월 중순에는 지하호프집 화재로 6명이 숨졌다.

참사와 '도덕적 해이'가 무슨 관계

### 사회 곳곳의 부패

### 반복되는 대형사고

### 그때뿐인 뉘우침

### 언제나 제자리

가 있는나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꿈이 빠져보자. 참사가 일어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반성이 녹음테이프 돌 듯 반복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호들갑을 떠다. 하지만 뉘우침은 그 때 뿐이고, 우리는 언제나 늘 제자리다. 이유는 간단하다. '내 일이 아니니까'

'나 때문은 아니니까'라는 사회구성원들의 생각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 관계자의 말은 이런 우리 모두의 '도덕적 해이'를 압축해 보여준 것일 뿐이다.

물론 이 모든 것을 다 '내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남의 일'이라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 성숙한 시민사회일수록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세가 보편화돼 있다. 그리고 그런 사회의 시민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도덕적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 이 '도덕적 배려'에 '나'가 책임지는 자세가 배어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웃 일본은 지난해 9월 방사능 누출사고를 계기로 '실패학(失敗學)'을 구축하려는 보고서를 냈었다. 실패, 사고, 시행착오 사례를 수집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눠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각종 참사는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

게 닥칠 지 모르는 일이다. 참사를 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만 쳐부서는 안되는 이유가 비단 이때문만은 아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 가해자요, 피해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신경한 일상, 무감각한 관습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찌 한 두 사람의 책임일 수 있겠는가. '도덕적 해이'는 바로 스스로 참회하지 않는 무책임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시민사회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시민의식이 없는 한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되는 각종 참사를 막을 길은 없다.

<심지관경>에 "능히 법담에 참회하면 번뇌를 없애고 수미산과 대해(大海)를 태워버리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다. 진정한 참회야말로 '도덕적 해이'를 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한영우 기자 (mwhan@buddhapia.com)

# “재단전입금 늘리자” “종립학교 역할 못한다”

## 동국학원 발전 방안 세미나 주요쟁점

10월 31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 조계종립 동국학원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열린 세미나에서 학교측은 종단의 지원, 종립학교관리위는 학교측에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을 촉구했다.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학담)가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는 종회의원과 동국학원 보직교수 등 150여명이 세미나장을 가득 채워 동국학원 발전 방안 관련 높은 관심을 보였다.

3시간여 동안 열띤 토론을 벌인 이번 세미나는 종립학교관리위 연구소위원장 영담스님의 기조발제 '동국학원의 건학 이념 구현과 발전을 위한 제언',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장곡스님과 동국대 교수회장 심익섭 교수의 '조계종단위 동국학원의 생산적 관계 모색', '동국학원 운영 현황과 발전 방향을 위한 모색'을 주제로 한 발표, 지정 토론과 종합 토론으로 진행됐다.

### 특정 문중중심 폐쇄성

■ 동국학원 문제의 원인 '영담-종단의 책임이 일차적이다. 이 사, 감사를 지냈거나 지금도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일부 스님들이 종단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자기역할을 방기하고 특정 문중 중심의 폐쇄적인 태도에서 많은 문제가 비롯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몽길(기획인사처장)-동국대가 수차례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있었음에도 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종단이 지난 30여년 동안 불안정했다는 것이다.

연기영(법과대학장)-50년대 이후 종단의 갈등·대립 과정에서 학교에 대해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이런 자라도 학교 설립 이후 처음이다.

### 병원봉사 관심과 지원

■ 불교종합병원 '영담-동국학원은 당면한 사업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일산불교병원의 경우 이미 지급된

220여억원을 제외하고 향후 투자해야 할 예산만도 1500억원을 상회할 것이다. 그러나 재원 마련 계획이 대부분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다. 사업성 검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함으로 써 사업에 대한 의구심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김정대(직업노동위원회)-병원 건립에 대해 비판할 할 시기가 아니다. 종단이 앞장서서 지원해야 한다.

송재운(전 법안사무처장)-동국대의 위상을 높이고, 자비실천의 열의를 달성하는 불사이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비판보다는 병원 건립 불사가 원만한 회향되도록 협조하는 것이 옳다.

심익섭(교수회장)-주사위가 던져졌으니 어쩔 수 없다는 논리는 안된다. 지금이라도 허심탄회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새 길을 찾아야 한다. 세영(종회의원)-불교종합병원을 짓는 것에 대해 모두 찬성한다. 그러나 큰 재원이 운영되는 종합병원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병원 건립에 대해 종단과 협의한 바도 없다. 질의해도



조계종립 동국학교관리위원회와 동국대 관계자들이 동국학원 발전방안에 대해 열린 토론을 벌이고 있다.

답변이 없다. 만약 운영이 잘못되면 누가 책임을 지겠는가.

현용(종회의원)-학교와 종단은 서로를 너무 모르고 있다. 일산병원 건립을 위해 종단에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데, 종단은 상황을 모르고 있다. 종단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르고 있으니 지원이 있을 수 없다. 재단과 종단이 자료를 공유해 발전 방안을 찾아야 한다.

### 간섭과 관심은 다르다

■ 건학이념의 실현 '장곡(종립학교관리위원)-학술적 연구를 통한 이론적 토대 제공은 종립대의 존재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동국대는 이 분야에 있어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동국학원이 물량적으로 발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학술적으로 현대사회에 불교의 역할을 제대로 밝혀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종단이 문제를 제

기하면 '부당한 간섭' '종단이 또 괴롭힌다'고만 생각한다. 이같은 학원 관계자들의 시각이 바뀌지 않으면 불필요한 대립만 낳을 뿐이다.

정몽길-학교 설립 목적에 우선적으로 봉사하고 복무해야 한다는 요구는 자칫하면 대학의 학문적 풍토를 배타적인 편협성에 매몰시킬 소지가 있다. 조계종단은 건학 이념 구현을 통한 대학 발전을 기대하고 독려하되, 학교 경영의 법적 주체인 재단을 통해야 한다.

학담-건학 이념의 개념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 인사처장께서 수계식 같은 것을 내열하는데, 그게 아니다. 종단과의 단절을 얘기하는 것이며, 전통가치에 대한 자기모멸적인 태도에 대한 지적이다.

법산(정각원장)-신임교수가 오면 불교와 전공분야를 연계하는 논문을 써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얼마 전 서울대에서 식품공학을 연구하는 교수가 육식

과 채식, 유식학을 관련지은 연구를 하겠다며 유식학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었다. 우리 대학에서도 그런 논문이 많이 내주길 교수회에서 독려할 수 없다.

### 이사들의 역할 크다

■ 종단과의 관계설정 '장곡-종단과 동국학원의 생산적 관계 모색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동국학원은 종단의 충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둘째, 동국학원 이사·감사들이 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종단에서 파견한 이사·감사는 동국학원 운영을 잘 하라고 파견한 공무원들이다. 이사·감사들의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이사회를 공개회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그간 보여준 문중적·개인적 이해를 떠나 종립학원의 발전에 정성껏 노력을 보아야 한다.'

정몽길-동국대가 종단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학술 연구를 통한 불교 발전에 기여, 인재 양성, 포교 등으로 요약된다. 조계종단이 동국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정신적인 지지 역할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 졸업생 취업, 학교 홍보 등이다. 우리 대학의 재단 전입금은 매우 낮은 수준(2.7%)이다. 종단 차원의 적극적인 후원이 필요하다.

김정대-전문성과 재정 동원력을 갖춘 인사가 재단의 상층부를 구성해야 한다. 학교 발전의 전제조건은 재원의 확보이다.

현용-재단 전입금이 2%대라는 것을 오늘 알고 대단히 실망스럽다. 이 사람이 뛰어들어 전입금을 늘렸어야 했다. 종단의 기여도가 어떻게 적은지 종도들은 모르고 있다. 종단에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영담-재단 전입금이 2%대에 머물고 있는 것에 대해 이사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정리=정성운 기자



**소장하면 소장할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책**

- ◆ 한국의 불화를 집대성하기 위해 전국의 사찰 및 국공립박물관, 대학박물관, 사립박물관 등 국내외에 산재한 불화를 직접 조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현재 전국 11개 본말사 564개 사찰, 박물관 7개소, 1,621점, 3,674컷 수록)
- ◆ 원색도판을 풍부하게 실어 원화를 직접 대하는 느낌이 들도록 하였으며, 각 불화에 대한 해설과 함께 講記를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 ◆ 이 불화집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부처님의 자비심이 피어나고, 민족문화에 대한 새로운 자긍심이 싹트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 석정 큰스님 -
- ◆ 한국불화의 전체적인 모습을 처음으로 집대성한 이 불화집의 간행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사적인 측면에서도 큰 의의를 지닌다. - 조선일보 -

**原畫 그대로의 화려함이 살아 있습니다**

- 판형 : 가로 257 × 348mm (타블로이드판형)
- 연수 : 각권 250쪽 내외 (원색화보, 해설, 논문, 후기 수록)
- 정정 : 전면 컬러 · 양장제본
- 발행처 : 성보문화재단연구원
- 가격 : 각권 90,000원

# 韓國의 佛畫

**불교출판 사상 최대의 불사, 두 번 다시 하기 힘든 한국불화의 집대성**

해를 거듭할수록 훼손으로 인해 천견하기 어려워지는 각종 불화들! 우리의 성보인 이 불화(명화)들은 정염된 불국토의 화현이요 신심의 결정체이며, 불보살님의 원만한 상에서 우러나오는 복덕의 광명은 우리의 이들을 잃어주고 간절한 바람을 성취시켜 줍니다. 사단법인 성보문화재단연구원에서는 10년의 조사와 촬영 끝에 『한국의 불화』 1차분 20권을 완간하였습니다. 아울러 완간을 기념하여 2개월 동안 특별 할인판매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디 이 기회에 불화집을 구입하시어 불보살님과 함께하는 인연을 맺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보문화재단연구원 이사장 범 하 함장**

구입문의 / 성보문화재단연구원 ☎ (02) 587-6612, 팩스 (02) 586-9078

**5년 전의 약속, 1차분 20권 마침내 완간!**

『한국의 불화』 1차분 관행목록(1996년~2000년)

제1권 통도사 본사 편(상)	제11권 화엄사 본말사 편
제2권 통도사 본사 편(중)	제12권 선암사 편
제3권 통도사 말사 편(하)	제13권 금산사 본말사 편
제4권 해인사 본말사 편(상)	제14권 선운사 본말사 편
제5권 해인사 본말사 편(하)	제15권 마곡사 본말사 편(상)
제6권 송광사 본말사 편(상)	제16권 마곡사 본말사 편(하)
제7권 송광사 본말사 편(하)	제17권 법주사 본말사 편
제8권 직지사 본말사 편(상)	제18권 대학 박물관 편(I)
제9권 직지사 본말사 편(하)	제19권 대학 박물관 편(II)
제10권 월정사 본말사 편	제20권 사립 박물관 편

**『한국의 불화』 원간 기념 특별가 200질 민정보급**  
기간: 2000년 11월 2일 ~ 12월 31일  
보급가: 1백만원(20권 1질, 현금결제에 한함)